

“빠르게 더 빠르게” 스피드마케팅 온-오프 확산



인터넷 시대에서 그런가, 어디 가나 ‘빨리 빨리’가 유행이다. 그냥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유행병이다. 먹는 것, 입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얼굴 틀어 고치는 성형수술에 이르기까지 그저 ‘속’ 소리 나는 ‘스피드 마케팅’이 확산돼 있다. 어디 가도 ‘노믹스 문화’, ‘여유와 미학’은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 강남의 테헤란블러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주부 이해정(30세). 일산 6개월째인 그는 스피드한 하루를 보내는 대표적인 현대여성이다. 그의 하루는 이렇다. ‘이씨는 7일 하루도 스피드푸드(www.ispeedfood.co.kr)라는 웹 사이트를 통해 식단을 짜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마쳤다. 이날 아침 현관 앞에는 이를 전 주문한 식단 내용대로 음식이 배달돼 있다. 출근을 하니 사임 아티스트 프리젠테이션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프리젠테이션에 쓸 자료를 찾으러 국회도서관에 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어질렀다. 이때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하나. 얼마전 석사과정을 받고 있는 친구가 소개한 논문자료 복사대행 서비스 사이트를 찾는다. 자료 목록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주문표를 작성했다. 일과를 간략하게 마친 이씨는 남편과 함께 영화 한편을 보러 가기로 했다. 당연히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고, 영화관으로 향한다. 영화관과 기술의 발달은 식생활부터 문화분야까지 모든 일상생활을 속전속결의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만큼 마케팅의 기법도 스피드를 초점으로 짜여져 있다. 갖가지 상품과 대행을 통한 서비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스피드 마케팅의 세계로 떠나자.

스피드푸드(www.ispeedfood.co.kr)라는 웹 사이트를 통해 식단을 짜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마쳤다. 이날 아침 현관 앞에는 이를 전 주문한 식단 내용대로 음식이 배달돼 있다. 출근을 하니 사임 아티스트 프리젠테이션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프리젠테이션에 쓸 자료를 찾으러 국회도서관에 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어질렀다. 이때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하나. 얼마전 석사과정을 받고 있는 친구가 소개한 논문자료 복사대행 서비스 사이트를 찾는다. 자료 목록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주문표를 작성했다. 일과를 간략하게 마친 이씨는 남편과 함께 영화 한편을 보러 가기로 했다. 당연히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고, 영화관으로 향한다. 영화관과 기술의 발달은 식생활부터 문화분야까지 모든 일상생활을 속전속결의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만큼 마케팅의 기법도 스피드를 초점으로 짜여져 있다. 갖가지 상품과 대행을 통한 서비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스피드 마케팅의 세계로 떠나자.

/총혜정기자 hamani@munhwa.co.kr

◆어떤 음식도 똑똑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인터넷 등을 매개로 회원들의 주문을 받아 완전조리된 음식이나 반조리된 음식을 각 가정의 문 앞에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1주일이나 한달 단위의 식단을 미리 짜서 가족들에게 균형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제사음식의 경우 예산과 음식의 종류를 미리 결정, 인터넷으로 주문만 하면 되는 세상이다. ‘이가’(www.lego-house.co.kr) 같은 업체가 대표적이다. ‘스피드푸드’는 가열만 하도록 하는 반조리 상태나 완전조리 형태의 음식을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매일 아침 주문자의 식탁으로 배달해준다.

인터넷으로 식단 주문 다음날 눈뜨면 문앞까지

7일완성 다이어트 인기 ‘성형 렉수술’ 30분만에

◆아름디음도 초간편시대

스피드다이어트(www.speeddiet.co.kr)같은 초간편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인기가. 7일 완성 등을 목표로 짧은 시간 안에 개인별 식단과 운동량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원격관리를 실시한다. 꼭 온라인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 강남의 강양수성형외과 같은 곳에서는 눈꺼풀에 지방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메드백을 이용, 쌍꺼풀 수술도 30분 만에 후다닥 해준다. 김양수원장은 ‘1~2시간 후에는 곧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 ‘렉 수술’을 하러 오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육아도 간편하게

‘이기밥’(www.agtob.co.kr)에서는 이유식을 매일 아침 각 가정으로 배달해준다. 전문 영양사와 소아과 의사 등의 전문 처방을 토대로 천연재료를 이용, 우리 고유의 맛과 조리법을 살리고 있다. 유아들에게는 단계별로 나뉜 이유식을 제공하고, 이윽기 가 끝나면 성인식으로 이동하기 전 전4세까지 호박을 이용한 뽕지 않은 감자, 찌지 않은 국 등 아이들의 입맛과 건물의 입맛을 결합시킨 식단을 갖고 아침마다 소비자들이 찾는다. 이기밥의 유행정체는 ‘예상과는 달리 맛별이 주부보다는 전업주부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다는 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매일아침 이유식 도착 전문영양사 직접 처방

클릭 한번에 논문복사 놀이문화도 시간 절약

◆공부도 손쉽게, 놀이도 시간 절약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리포트 등을 쓸 때 참고 논문을 찾기 위해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마우스만 움직이면 된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논문복사대행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해주는 스피드카피(www.speedcopy.com)와 같은 업체가 수백여곳에 이른다. 이용자들은 지방의 교사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주고객이고, 요즘엔 전문직 직장인들의 수요도 늘고 있다. 놀이문화에도 시간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전자우편과 달리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전달이 가능한 인스턴트 메신저나 복기와 정석풀이, 저장할 수 있는 전자바둑판 등이 이용자들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있다.

‘고민스런 性’ 만화로 풀어요

학원만화 새 소재로 인기

원조교제·미혼모 등 현실다뤄
폭력일변도 기존소재에 반기

“학교에 폭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들의 관심은 다양해요.” 폭력을 일색이던 학원만화에 황파나 성(성), 교권 실추 등 학교 안팎에서 중·고생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폭력일변도 기존소재에 반기 “나나 갈래”, “구타 맞람” 같은 만화들이 주로 일부 남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다. 최근 이들 폭력 일변도에 반기를 들며 쏟아져 나오는 만화들은 인기 지역의 남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학원만화의 소재 중 압권은 역시 성문제다. 특히 원조교제나 미혼모 문제 등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이것이 사랑’ (1,2권 출간·문석배)에서는 남자 고등학생과 여자 대학생이



성을 소재로 한 학원만화들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경향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최근 선보인 ‘와일드 티처’와 ‘세이 러브’ 등. ‘와일드 티처’(1권 출간·정기철)에서는 한 왕따 여학생이 같은 반 친구의 휴대전화 비용을 상납하기 위해 PC방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아저씨와 일조교제를 하게 되지만 아저씨의 속임수에 빠져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정을 그리고 있다. ‘세이 러브’(1,2권 출간·문석배)에서는 남자 고등학생과 여자 대학생이

하룻밤 불장난을 통해 아이를 갖게 되자 겪는 감정을 그린다. 이들 만화는 각기 다른 상황의 성을 그리고 있지만 현실의 중·고생들이 겪고 있는 성에 대한 욕망과 정신적 고민 등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우리의 학원만화는 은유나 생략 등의 방법을 사용해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조교제나 동성애 등을 자극적인 필치로 그리는 일본의 학원만화를 따른다. 고교 1년생인 이은주(16·서울은평구)양은 “힘을 갖고 있으면 친구도, 여자도, 권력에 자연스럽게 따르는 식의 폭력물에 싫증을 느낀다”며 “현실이나 상상 속의 다양한 예가들이 만화로 그려는 게 인기를 얻어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주니어웹프” 편집부 김영민팀장은 “학원만화는 앞으로 소재의 변화와 혼합 등을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아직 주류는 아니지만 성문제를 소재로 한 만화가 지금보다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될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총혜정기자

운전면허 따러 ‘태백으로’

태백시험장 원정수험생 북적

지난달 하루우시생 200명 육박
서늘한 날씨에 적체되어 물러



강원도 태백시험장이 피서 겸 면허증 따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특이에서 물러온 사람들이 만원을 이루고 있다.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이 수도권 등지에서 면허를 따기 위해 물러온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태백 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응시인원은 지난 3~4월 10여명에서 꾸준히 증가, 지난 7월에는 200명정도를 육박했다. 시험장쪽에 따르면 이들 3분의 1 이상은 수도권 등 태백 이외의 지역에서 원정온 이들이었다. 이같이 태백 운전면허시험장이 타 지역민들에게 인기를 끄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태백지역이 한 여름 밤에도 19℃를 밑돌아 긴팔 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서늘한 곳이어서 피서와 면허시험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 면허시험장이 용연동굴 등 관광 명소 곳곳에 위치해 관광하기도 좋을 뿐 아니라, 응시 적체현상이 없

어 할말뿐이나 기다려야 하는 수도권 면허시험장과는 달리 원서 접수 다음날이면 바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위가 모두 낡아 폐지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이 곳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장측은 이에 따라 응시생을 더 많이 유치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과 시험에 대비한 녹음 테이프와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기능시험장을 개방하는 등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응시인원 급증으로 지역 택시업계

sisy@munhwa.co.kr